

主 題

'98년 정보통신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 홍 식

차 례

- I. 정보통신 정책환경의 변화
- II. '97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 III. '98년 정보통신정책방향
- IV. 맺음말

I. 정보통신 정책환경의 변화

'98년은 정보통신환경의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극심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로의 성공적 진입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주지하듯이 국내 통신시장은 WTO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개방체제로 들어 갔으며 IMF경제상황에 따라 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극복이 지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유·무선, 통신·방송 융합은 새로운 미디어와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 오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서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이 국가전략주도 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첩경 이라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II. '97년 정보통신정책 추진실적

첫째, 정부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2000년까지의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한 데 이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1단계사업을 작년말완료함으로써 전국 80개 주요 도시를 광선망으로 연결하고 최근의 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5년 앞당긴 2010년까지 초고속망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한 바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해 주요도시간 인터넷 기간망을 고속화(45M→155Mbps)하고 미국 등 주요국가와의 국제회선 용량을 확대하였다.(40M→210Mbps)

둘째, WTO협상결과와 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개방체제에 대비하였고 '97. 6월에는 마지막 독점상태였던 시내전화 등 5개분야에 10개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하여 국내 모든통신서비스에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하고(사무국 신설), 한국통

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였다.

셋째,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관건인 기초기술과 핵심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총 6,13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10G 광전송장비, 고속 소자(150GHz), 집적회로(10G) 및 이동통신단말기의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으로 정보통신기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인력양성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하여(594억원) 정보통신전문 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였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였다.('97.12)

넷째, S/W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1,960억원) 중소 S/W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켰으며 S/W지원센터(4개소), 창업지원실(6개소), 멀티미디어 콘텐츠진흥센터 설치를 통해 S/W업체의 창업기반을 뒷받침하는 한편 영세한 S/W업체들의 자금여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 S/W공제사업을 실시하고 S/W수요예보제를 확대하였다. (93개 기관, 2,083억원)

그리고 국산S/W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출촉진을 위해 S/W 종합박람회인「소프트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97.12)

한편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2,933억원)하였고 일단 기업화에 성공한 신생기업중 매년 40~5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자금·판로·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ASIC지원센터, 멀티미디어콘텐츠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주식의 장외거래를 활성화하였다.

다섯째, 이외에 WTO기본통신협상과 한·미, 한·EU등 양자간 통신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켜 타결하였고 오는 2001년 부터 방송방식을 현재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통신장관회담 등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CDMA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적극

홍보한 바 있다.

Ⅲ. '98년 정보통신정책방향

올해 정보화사업은 IMF 환경하에서 경제·사회 각 분야의 구조 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확충을 주도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늘려 현재의 외환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1)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앞으로의 정보화사업은 IMF 환경하에서 공공부문이 우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민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화 노력을 중점 지원할 것이다.

먼저 전자결재제도 확대,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제도 도입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각 분야의 정보공동활용과 정보망연계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국민편익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보화촉진을 위해 각 부처에 고위정보관리자(CI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균형있는 정보화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정보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표준형 경영정보시스템(ERP)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은행·증권·보험망간의 연계확대로 금융기관 창구인력의 절감을 유도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서명, 암호화기술 등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술개발촉진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전자구매 및 조달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한 기업혁신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법·제도 종합 정비계

획을 수립하여 기존 법령정비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 사회 각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기간전송망을 현재 80개 지역에서 94개지역으로 확대·구축하고 초고속망을 모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망·CATV망 등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유·무선 통신망간의 상호연동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초고속(ATM)교환망을 구성하여 교육, 연구기관 등 약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속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본격적인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응용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국제회선을 대폭 확충하고 국내 인터넷 기간망의 고속·대용량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의 조기구축을 위해 한·일간에 추진중인 APII Test-bed를 중국 및 싱가포르 확대·추진할 것이다.

(3)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지원

가.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지원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규모를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고 2002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44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을 올해 3월에 개교하여 정보통신공학 석·박사와 Techno-MBA 등 매년 210명을 교육하는 한편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 전문대학 등에 실험실

기자재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등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의 교육·연구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체의 자체 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산업체 재교육을 지원(204억원)하고 여성·신세대·군장병 등 정보통신산업 잠재인력을 집중육성하는 등(94억원) 인력양성기반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나.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98년 5,886억원('98~2002년간 총 6조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체에 대한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4,144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초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은 '97년 10%에서 '98년 20%까지 확대하여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2001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0억불이상이며 개발후 1천만불이상 매출기여가 가능한 전략품목인 ATM-LAN, 광전송장치, 디지털방송기, 멀티휴대단말기, 인터넷 S/W 등을 중점 발굴·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부는 차세대를 선도하는 기초·기반기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원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산업기술은 민간기업 책임하에 개발하며, 시장은 크나 투자위험이 큰 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확대(120억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기술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S/W산업을 21세기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식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S/W산업을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S/W기술개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98년 2,500억원→2001년 3,000억원이상) S/W특성화고교 또는 전문대학에 대하여 장비구입비용 등을 지원하여(25억원) 2002년까지 7만명의 S/W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S/W지원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확대설치(5개소 → 7개소)하고 영세S/W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S/W공제기금을 200억원 추가조성하는 한편 S/W진흥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창업 및 산업활성화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의 S/W구입예산 확보를 제도화하여 올해 신규 PC구입비의 18%를 S/W구입비로 반영하는 등 S/W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외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 S/W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S/W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한 영문판 사이버마켓 및 대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에도 소프트웨어엑스포를 개최하여 S/W의 수출산업화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라.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S/W·ASIC·멀티미디어컨텐츠 등 분야별 창업 지원 시설은 확충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개발(ASIC),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등을 확대하며 정보통신벤처기업의 자금으로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금의 용자 지원규모를 4,24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신금융자금의 지원규모도 늘리는 한편, 정보통신업종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코스닥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기능 강화와 엔젤캐피탈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마.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활동 강화

정보통신산업은 '97년에 47억불(반도체 포함시 91억불) 흑자를 기록했으며, '98년에도 87억불(반도체 포함시 142억불) 흑자가 예상되며,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내업체의 해외통신 서비스사업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Vendor Financing(판매자 주선금융)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이동통신용핵심합, 2차전지 등 핵심부품의 조기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진출 기반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수출유망국가를 중심으로 통신협력위, 통신장관회담 등 정부차원의 대외협력위, 통신장관회담 등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한국통신, 전자통신연구원, 전산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개도국의 정보통신인력을 기술연수하는 등 해외진출 선행사업을 확대 하겠다.

(4)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가.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올해부터 통신사업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자유신청 방식을 도입하여 통신사업 진입을 자율화하는 등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음성재판매·인터넷폰·구내통신사업 등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공정경쟁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경쟁기반 조성을 위하여 망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고,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기지국시설 공용화 및 사업자간 상호로밍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을 제외한 모든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경쟁력 강화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검증을 허용하는 등 겸업승인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00년경에는 폐지할 계획이다.

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한 규제는 앞으로도 강화하여 불공정경쟁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

금 제도를 신설 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겠다.

다. 통신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

국내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약관 간소화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통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보통신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의무부담체계를 마련하여 경쟁환경에 적합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화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등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전파·방송사업의 활성화

가. 전파자원의 이용환경 개선

전기통신사업용 주파수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정책을 재정립하고 주파수 이용이 밀집되어 있는 대역의 주파수협대역화(25kHz→12.5kHz)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파이용형태, 무선통신의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전파사용료 산정방식을 개발해 나가겠다.

아울러 각종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인공위성의 급증에 대비하여 국내 우주전파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위성전파관리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무선통신의 경쟁력 강화 지원

무선국 허가·검사 및 무선기기 검정제도 개선 등 경쟁환경에 부응하는 전파이용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위성 휴대통신(GMPCS),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등 미래형 무선통신서비스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파수대의 이용기술, 디지털방송 송신기 및 핵심부품, 고선명TV 전송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파방송의 기초기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파·방송기술 분야 전문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통신·방송 융합추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주파수 할당계획 등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세부전환 계획을 조기 확정하는 한편 통합방송법령 제정으로 무궁화위성방송서비스의 조기 제공을 추진하고, 위성사업의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 등록 추진중인 위성궤도를 분배하고 민간기업의 위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또한 방송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독립제작사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방송콘텐츠산업도 적극 육성하는 한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방송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소, 학계등 전문가로 구성된「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송방식의 통합, 방송산업 진입규제 완화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6)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국내 관련부처와의 협의하여 각국의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OECD·APEC·WTO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新라운드 및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INTELSAT·INMARSAT 등 국제위성통신기구 구조개편 논의에 참여하여 국내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통신산업 해외진출 확대지원을 위해 해외진출정보 DB구축 및 정보수집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IV. 맺 음 말

금년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정보통신업계도 자금난, 설비투자위축, 경영체제 개편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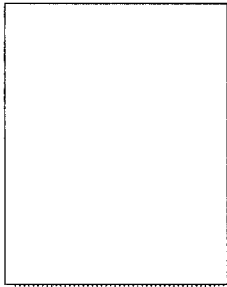
그러나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노력과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져 결실을 맺으면 현재의 곤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한층 견고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90년대 초반 전반적인 세계경기 후퇴때 미국은 GDP성

장을 보다 훨씬 높게 정보화투자를 확대한 결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세계1위의 경쟁력을 회복하여 과거 25년간 경험하지 못한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정보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반의 리스트럭처링과 정보통신 산업으로 대표되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시점에서 우리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통해 고효율 구조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주도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또한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정 홍 식

- 1971년 5월 : 행정고등고시(10회)
국무총리 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
- 1972년 11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7년 9월 : 영국 Bradford대 연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서기관)
- 1979년 4월 :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 1986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제학)졸업 (경제석사)
- 1987년 11월 : 대통령비서실
(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부이사관)
- 1989년 6월 : 체신부(전신망조정위 사무국장)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 1991년 1월 : 체신부 정보통신국장(이사관)
- 1993년 1월 : 국방대학원
- 1994년 1월 : 체신부전산관리소장
- 1995년 1월 : 정보통신정책실장겸 초고속정보통신 기획단장 (관리관)